

2012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제1호

태권도 올림픽 종목 유지를 위한 정책방안

2012. 10



목 차

1. 태권도	1
1) 태권도의 역사	1
2) 태권도 현황	4
3) 태권도 올림픽 종목 채택	9
2. 올림픽 종목 결정	10
1) IOC위원 역할	10
2) 올림픽 종목	13
3) 올림픽 핵심종목 축소 결정	15
3. 태권도 올림픽 종목 유지 문제점	16
1) 부정적 인식	16
2) 폐쇄적 운영	18
3) 대회운영 미숙	19
4. 올림픽 종목 유지 전략	20
1) 태권도 올림픽종목 유지의 필요성	20
2) 타종목 올림픽 유지 전략	24
3) 올림픽 추가종목 진입 전략	28
5. 태권도 올림픽 종목 유지를 위한 대책	31
1) 태권도 단체의 역할	31
2) 정부의 지원	33
3) 태권도 홍보	35
6. 맺음말	38
참고자료 : IOC 위원 현황	40

01 태권도

1) 태권도의 역사

우리나라는 삼국시대부터 중국, 일본 등 주변국과 삼국간의 치열한 전쟁으로 무예가 크게 발달했다. 태권도는 여러 문헌을 통해 2000년 전인 삼국시대부터 시작된 무술임을 알 수 있다.

태권도는 고구려 고분벽화에 그려진 풍속도에서 처음 모습을 볼 수 있다. 고구려시대의 고분 중 하나인 무용총(舞踊塚) 널방의 천장지붕부에 두 사나이가 서로 마주 서서 겨루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또 고구려 고분 중 하나인 삼실총(三室塚)에도 동벽과 서벽에 품세 자세가 그려져 있다. 황해도 지방의 고분인 동수묘도 동벽에 태권도 겨루기의 자세가 그려져 있는 등 고분을 통해 많은 고구려인들이 태권도를 수련했음을 알 수 있다.

고구려 뿐만 아니라 신라, 백제도 삼국의 정립시대(鼎立時代)로 자연히 태권도 등 무예진흥에 힘쓰게 됐다. 특히 신라 진흥왕(24대, 534년~576년) 때 화랑의 무예수업은 대표적 수련기술이다. 화랑은 무술의 하나로서 수박(手搏)을 수련했다. 경주 불국사 석굴암에 있는 금강역사 보살상이 태권도 막기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은 석가모니의 호위장으로 역사(力士)를 표현한 것이다.

고려 고종 때 이승휴의 '제왕운기'에 신라 무술의 대목에서 탁견술(托肩術)을 기술했다. 태권도의 옛말인 '태견'도 이 탁견에서 유래됐다.

백제는 태권, 즉 태권도가 행해졌다는 기록이나 유적을 볼 수 없으나, ‘제왕운기’에 의하면 백제의 무술로 수벽타(手擘打)의 기술을 묘사한 시구가 전해지고 있다.

태권은 고려시대에 이르러 더욱 체계화 됐다. 고려사에는 태권도를 수박 또는 수박희로 기록했다. 고려시대는 무예를 권장했기 때문에 그 수준도 높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라에서도 수박희를 잘하는 사람에게 벼슬을 내리기도 했다.

태권도는 조선시대에 와서 대중의 수련과 겨루기 등 백성들 생활영역까지 들어와 일반화 됐다. 조선시대에도 수박희로 시험을 봐 인재를 뽑았다. 정조 14년(1790년)에 나온 ‘무예도보통지’는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병법으로서 4권 첫 머리에 권법이라는 이름으로 태권도의 동작이 실려 있다.

태권도는 8·15광복 이후 저변확대가 되면서 활기를 띠게 됐다. 태권도는 1961년 9월 16일 대한태권도협회(Korea Taekwondo Association, KTA)를 창립하며 스포츠화됐다.

대한태권도협회는 1962년 대한체육회 경기단체로 가맹했고, 같은 해 11월 제1회 전국승단심사대회를 개최했다. 태권도는 1963년 전주에서 열린 제44회 전국체육대회에 정식종목이 됐다.

태권도는 1971년 故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국기태권도’라는 휘호를 대한태권도협회에 기증하면서 국기로 인정받았다. 국기원은 1972년 초대원장으로 김운용 원장이 취임하면서 건립됐다.

태권도는 88서울올림픽에 시범종목으로 채택돼 올림픽 무대에 섰으며 2012 런던올림픽까지 많은 세계인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다.

2) 태권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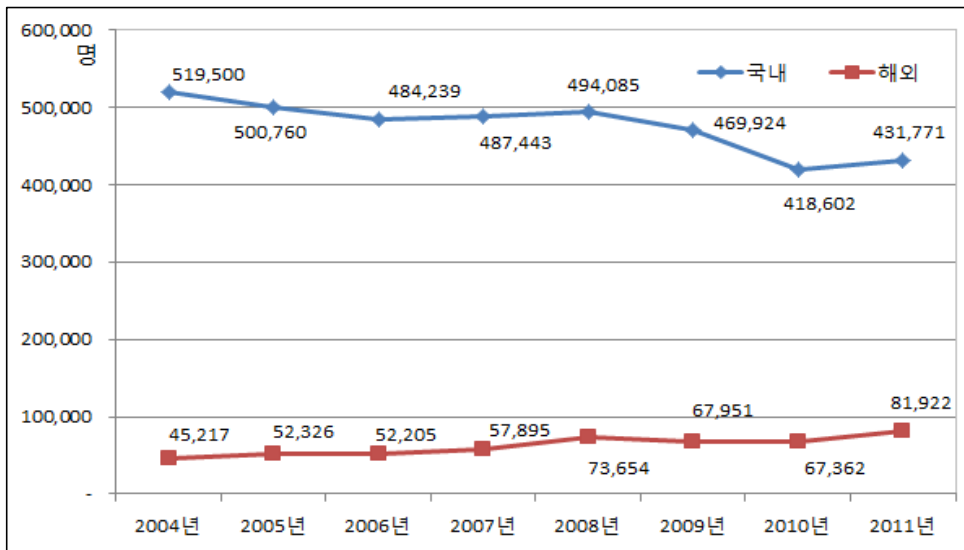
태권도는 전 세계 203개국 이 회원국으로 가입해 7,000여만명의 인구가 수련하고 있다. 국내 태권도는 도장만 9,500개에 달하고 등록된 선수만 13,673명이다. 태권도는 국내 747만명, 국외 72만명 등 세계적으로 819만명의 유단자가 있다.

〈표 1〉 태권도 현황

(단위: 개소, 명)

국내 태권도장 ^{주1)}	국내등록 ^{주2)}		유단자 ^{주1)}		
	선수	임원	국내	국외	소계
9,493	13,673	1,307	7,469,386	722,771	8,192,157

주1) 국기원 자료(2012년5월기준), 주2) 대한태권도협회 자료(2011년8월기준)



〈그림 1〉 국내외 승품·단 심사현황

〈표 2〉에서 보는바와 같이 WTF(세계태권도연맹, World Taekwondo Federation) 산하에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오세아니아, 팬암 등 5개 지역연맹과 203개 회원국이 있다.

태권도 회원국은 1973년 WTF 창설 당시 7개였으나 1980년 65개, 1990년 106개, 2000년 153개, 2012년 203개 등 크게 증가했다.

태권도 대륙별 회원국은 아시아 43개, 아프리카 48개, 유럽 49개, 오세아니아 19개, 팬암 44개 등 골고루 분포돼 있다. 또 전국 규모 국내대회를 개최하는 회원국 비율도 90% 이상으로 전 세계에 보편적으로 전파돼 있다.

〈표 2〉 세계태권도연맹 대륙별 연맹 및 회원국 현황

아시아 (43개)		
Afghanistan (1993)	Bahrain (1977)	Bangladesh (1999)
Bhutan (1985)	Brunei Darussalam (1973)	Cambodia (1995)
China (1995)	Chinese Taipei (1974)	Hong Kong (1978)
India (1979)	Indonesia (1975)	Iran (1975)
Iraq (1984)	Japan (1981)	Jordan (1979)
Kazakhstan (1993)	Korea (1973)	Kuwait Judo & Taekwondo Federa... (1977)
Kyrgyzstan (1993)	Laos (1996)	Lebanon (1978)
Macao (2002)	Malaysia (1975)	Mongolia (1991)
Myanmar (1990)	Nepal (1983)	Oman (2010)
Pakistan (1977)	Palestine (1989)	Philippines (1973)
Qatar (1977)	Saudi Arabia (1977)	Singapore (1975)
Sri Lanka (1983)	Syria (2000)	Tajikistan (1995)
Thailand (1975)	Timor-Leste (2009)	Turkmenistan (2000)
United Arab Emirates (1994)	Uzbekistan (1992)	Vietnam (1989)
Yemen (1988)		

아프리카 (48개)

Algeria (2004)	Angola (2001)	Benin (1978)
BOTSWANA (2012)	Burkina Faso (1981)	BURUNDI (2010)
Cameroon (2002)	Cape Verde (2000)	Central Africa (1999)
Chad (2000)	Comoros (2003)	Congo (1993)
Cote d'Ivoire (1975)	DR Congo (2005)	Egypt (1979)
Equatorial Guinea (1997)	Ethiopia (2003)	Gabon (1978)
Gambia (2007)	Ghana (1981)	Guinea (2001)
Kenya (1990)	Lesotho (1990)	Liberia (2001)
Libya (1979)	Madagascar (1993)	Malawi (2007)
Mali (2000)	Mauritius (1978)	Morocco (1981)
Mozambique (2005)	Niger (1999)	Nigeria (1988)
Rwanda (2011)	Sao Tome & Principe (2004)	Senegal (1995)
Seychelles (2012)	Somalia (1997)	South Africa (1991)
SOUTH SUDAN (2012)	Sudan (2003)	Swaziland (1985)
Tanzania (2003)	Togo (1996)	Tunisia (1978)
Uganda (2007)	Zambia (2006)	Zimbabwe (1997)

유럽 (49개)

Albania (1995)	Andorra (1987)	Armenia (1996)
Austria (1973)	Azerbaijan (1995)	Belarus (1992)
Belgium (1975)	Bosnia & Herzegovina (1993)	Bulgaria (1990)
Croatia (1992)	Cyprus (1982)	Czech Republic (1995)
Denmark (1975)	Estonia (1998)	Finland (1979)
France (1975)	Georgia (1995)	Germany (1973)
Great Britain (1977)	Greece (1985)	Hungary (1989)
Iceland (1991)	Ireland (1983)	Isle of Man (2006)
Israel (1981)	Italy (1977)	Latvia (1992)

Lithuania (1992)	Luxembourg (1993)	Macedonia(Former Yugoslav Repu... (2001)
Malta (1995)	Moldova(Republic of Moldova) (1995)	Monaco (1996)
Montenegro (2007)	Netherlands (1976)	Norway (1977)
Poland (1979)	Portugal (1976)	Romania (1991)
Russia (1991)	San Marino (1994)	Serbia (1975)
Slovakia (1994)	Slovenia (1993)	Spain (1975)
Sweden (1977)	Switzerland (1977)	Turkey (1975)
Ukraine (1993)		

오세아니아 (19개)

American Samoa (2007)	Australia (1975)	Cook Islands (2011)
Fiji (1983)	French Polynesia (1975)	Guam (1986)
Kiribati (2006)	Marshall Islands (2007)	Micronesia (2011)
Nauru (2011)	New Caledonia (2010)	New Zealand (1975)
Palau (2011)	Papua New Guinea (2003)	Samoa (1997)
Solomon Islands (1999)	Tonga (2001)	Tuvalu (2011)
Vanuatu (2004)		

팬암 (44개)

Antigua & Barbuda (1998)	Argentina (1976)	Aruba (1992)
Bahamas (1997)	Barbados (1986)	Belize (1997)
Bermuda (1983)	Bolivia (1977)	Brazil (1975)
British Virgin Islands (1998)	Canada (1975)	Cayman Islands (1989)
Chile (1989)	Colombia (1976)	Costa Rica (1984)
Cuba (1993)	CURACAO (2012)	Dominica (1999)
Dominican Republic (1983)	Ecuador (1973)	El Salvador (1987)
Grenada (1995)	Guadeloupe (2011)	Guatemala (1991)
Guyana (1995)	Haiti (1992)	Honduras (1979)
Jamaica (1977)	Martinique (2011)	Mexico (1973)

Nicaragua (1991)	Panama (1989)	Paraguay (1982)
Peru (1977)	Puerto Rico (1977)	St. Kitts & Nevis (1998)
St. Lucia (1998)	St. Vincent & The Grenadines (1992)	Surinam (1977)
Trinidad & Tobago (1983)	U.S.A. (1975)	Uruguay (1990)
Venezuela (1976)	Virgin Islands (1981)	

3) 태권도 올림픽 종목 채택

IOC 집행위원회와 IOC 총회는 1980년 4월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IOC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프로그램 분과위원회에 WTF 승인 권고를 했다. IOC는 같은 해 7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13차 IOC 총회에서 WTF를 인정했다.

태권도는 1984년 9월 쿠웨이트에서 열린 OCA(Olympic Council of Asia, 아시아 올림픽평의회)에서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 정식종목으로 채택됐다. 이후 태권도는 1985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IOC총회에서 88서울올림픽에 시범종목으로 채택돼 1992년 바르셀로나올림픽, 1996년 애틀란타올림픽까지 3차례의 시범경기를 가졌다.

태권도는 1994년 9월 4일 파리 IOC 총회에서 2000년 시드니올림픽부터 정식종목으로 채택됐다. 당시 김운용 전 IOC 위원(2005년 사퇴)과 이건희 IOC위원 등 활동으로 태권도 정식종목 채택이 가능했다.

태권도는 이후 2004 아테네올림픽, 2008 베이징올림픽, 2012 런던올림픽까지 정식종목으로 채택돼 경기를 가졌다.

02 올림픽 종목 결정

1) IOC위원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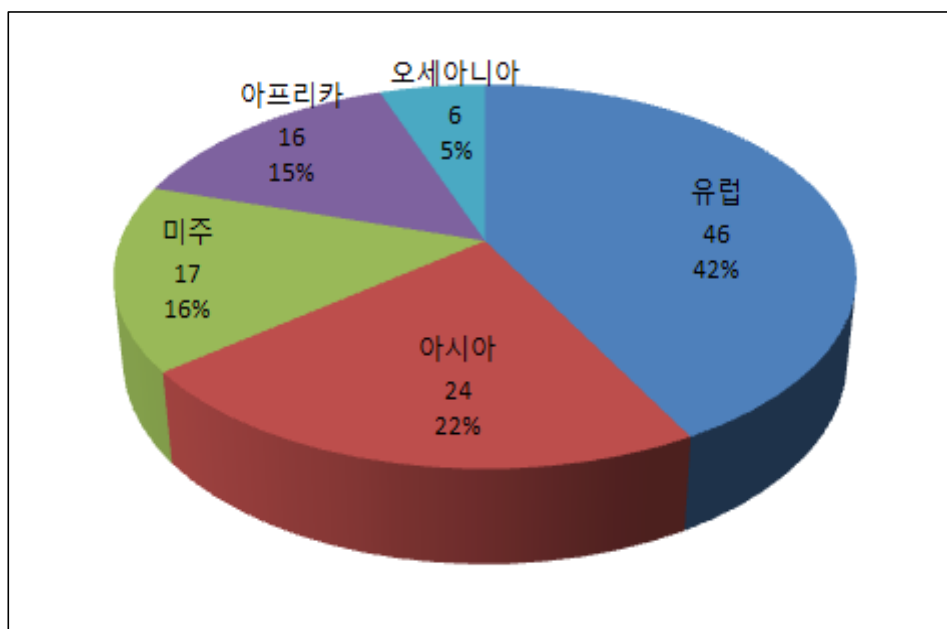
IOC 위원은 개인자격 70명, 선수위원 15명, 국제경기단체대표 15명, 올림픽 위원회 위원장 15명 등 115명이나 2012년 9월 현재는 86개국 109명의 IOC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IOC는 선수위원회, 회계감사위원회, 조정위원회, 문화와올림픽교육위원회, 수행위원회, 윤리위원회, 평가위원회, 재정위원회, 국제관계위원회, 집행위원회, WADA위원회, 사법위원회, 마케팅위원회, 메디칼위원회, 지명(추천)위원회, TV권리와뉴미디어위원회, 우표와메달기념품위원회, 올림픽프로그램위원회, 언론위원회, 라디오텔레비전위원회, 스포츠와환경위원회, 스포츠와법률위원회, Sport for all위원회, 여성과스포츠위원회 등 25개의 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다.

IOC 초대회장은 드미트리어스(Demetrius Vikelas)로 1894년부터 1896년까지 2년 동안 재임했다. IOC 회장은 비밀투표로 선출하며, 과거에는 임기가 없었는데 1999년 12월 8년간 임기로 변경됐다. 현재 IOC회장은 자크 로게(Jacques Rogge) 회장으로 IOC 6번째 회장이다.

IOC위원은 2012년 9월 현재 유럽이 46명(42%)으로 가장 많고, 아시아 24명(22%), 미주 17명(16%), 아프리카 16명(15%), 오세아니아 6명(6%) 순으로 대륙별로 분포돼 있다.

IOC위원은 스위스가 5명으로 가장 많이 활동하고 있고, 아시아는 중국 3명에 이어 우리나라가 이진희 위원(개인자격), 문대성 위원(선수위원) 등 2명이 있다.



〈그림 2〉 대륙별 IOC위원 분포현황(2012년 기준)

IOC 내에는 집행위원회가 있다. 집행위원회 회장은 IOC 회장이 겸임하고 있다. IOC 집행기관인 집행위원회는 IOC 주요 정책결정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다.

현재 집행위원회 부회장은 Ser Miang Ng(싱가폴), Thomas Bach(독일), Nawal El Moutawakel(모로코), Craig Reedie(영국) 등 4명이다.

회원은 Rene Fasel(스위스), John Coates(호주), Sam Ramsamy(남아공), Gunilla Lindberg(스웨덴), Ching-Kuo Wu(대만), Patrick Joseph Hickey(아일랜드), Claudia Bokel(독일), Juan Antonio Samaranch Jr(스페인), Sergey Bubka(우크라이나), Willi Kaltschmitt Lujan(콰테말라) 등 10명이다. 부회장과 회원은 4년마다 비밀 투표에 의해 선출된다.

IOC 위원은 올림픽 개최지 및 올림픽 종목을 선정한다. 또한 IOC위원은 IOC위원장, 부위원장, 집행위원, IOC위원을 선출하고 올림픽 관련 주요 결정사안에 대해 투표권을 행사한다.

2) 올림픽 종목

올림픽 경기 종목은 대회가 열리기 7년 전에 확정된다. 2008년 올림픽 대회 기준으로 하계 올림픽은 26개 부문과 36개 종목 및 300여 개의 경기로 구성됐다. 각 종목의 경기 종류는 매 대회마다 조금씩 변경됐다.

제1회 하계 올림픽은 9개 종목이 실시됐다. 이후 종목이 추가돼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전체 28개의 종목이 실시됐다. 2012년 런던올림픽에는 야구와 소프트볼이 정식종목에서 제외돼 26개로 줄어들었다.

〈표 3〉 2012년 런던올림픽 정식종목

수영	양궁	육상	배드민턴
농구	복싱	카누 카약	사이클링
승마	펜싱	축구	체조
핸드볼	하키	유도	근대5종
조정	보트	사격	탁구
태권도	테니스	트라이애슬론	배구
역도	레슬링		

IOC는 2007년 과테말라에서 열린 총회에서 핵심종목(Core Sports)제도를 제안했다. 종전의 올림픽 종목 선정방식을 핵심종목과 추가종목으로 구분했다.

핵심종목은 별도의 선정절차 없이 반영구적으로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된다. 핵심종목은 IOC 총회에서 핵심종목 전체에 대해 가부를 정하는 블록투표제를 시행해 과반 이상을 얻으면 된다.

추가종목은 대회 후보 종목간 일정 선정절차를 거쳐 올림픽종목으로 채택된다. 추가종목은 IOC총회에서 추가종목에 대한 종목별로 투표를 시행해 결정하게 된다.

〈표 4〉 올림픽 종목 결정방법

구분	변경전	변경후	
		핵심종목	추가종목
기본절차	올림픽프로그램위(평가보고서 작성)→집행위(심의)→총회의결	변경전과 동일	변경전과 동일
총회의결 정족수	종목진입시 IOC위원 2/3 찬성, 탈퇴시에는 1/2 찬성	진입과 탈퇴 모두 1/2 찬성	진입과 탈퇴 모두 1/2 찬성
총회의결 방법	종목별 투표	블록 투표제	종목별 투표

3) 올림픽 핵심종목 축소 결정

내년 9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IOC총회가 열린다. IOC는 내년 9월 총회에서 현재 26개인 올림픽 핵심종목을 25개로 축소할 예정이다. 현재 퇴출 예상종목은 태권도, 근대5종, 트라이애슬론, 복싱, 승마 등 5개 종목이다.

IOC는 2016년, 2020년 하계올림픽에서 골프와 7인제 럭비 등 2개 종목을 추가했고, 신규로 야구, 소프트볼, 웨이크보드, 스쿼시, 스포츠 클라이밍, 롤러스포츠, 가라테, 우슈 등 8종목 중 1종목을 신규 종목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IOC는 지난 4월 종목별 IF(국제경기연맹, International Federation)에 질문서를 보냈다. 해당 종목별 IF는 9월까지 답변서를 작성해 IOC 제출, 2012년 말 15명으로 구성된 IOC 프로그램위원회에서 올림픽 종목 후보평가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IOC 집행위원회는 2013년 8월까지 프로그램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심의하고 같은 해 9월 IOC 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25개 올림픽 핵심종목을 결정할 예정이다.

IOC 프로그램위원회는 기존 26개 정식 종목에서 제외되는 1개 종목을 영구제외할지 신규 추가 후보 종목과 함께 잔류할지 등 방식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태권도가 올림픽 핵심종목에 포함되기 위해선 IOC 프로그램 위원 등 IOC 위원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03 태권도 올림픽 종목 유지 문제점

세계 203개 회원국과 7,000만 태권도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IOC 내 부정적 인식, 단체 간 갈등, 올림픽 등 각종 대회에서 판정 불복, 지루한 경기, 경기 운영미숙 등 문제점으로 인하여 지지기반이 약화되고 있다.

1) 부정적 인식

WTF는 2005년 싱가포르 IOC 총회에서 태권도가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있어 2004년 낫 인드라파나(Nat Indrapana)를 위원장으로 개혁위원회를 구성했다.

WTF는 개혁위원회에서 경기 운영방법 개선, 5년간 3,175억원의 정부지원, WTF-ITF 통합, 집행부 개선 등 보고서를 작성, 2012 런던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면서 위기를 넘겼다.

그러나 낫 인드라파나 개혁위원회 위원장(태국 IOC위원)은 최근 WTF 집행부와 각을 세우고, IOC에 ‘맨체스터 돈봉투 사건’을 고발했다. WTF 부총재이기도 한 낫 인드라파나 위원은 ‘맨체스터 돈봉투 사건’ 고발 이후 WTF가 오히려 자신을 공격하자 크게 격분했다.

IOC가 윤리위원회의 청문회를 거쳐 공식적으로 WTF 담당자 징계 및 투명한 회계처리라는 강경한 조치를 취한 것도 여기서 비롯됐다.

또한 WTF의 개혁추진 결과에 대해 성공했다는 국제적 여론이 부족하고 오히려 개혁추진위원장이었던 닷 인드라파나 IOC 위원과 불편한 관계로 부정적 이미지가 증대됐다.

지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활동에서 일부 IOC 위원도 태권도 관련 부정적 언급을 하면서 올림픽 정식종목 퇴출 가능성도 커졌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평가단으로 대한민국을 방문한 IOC 위원 중 일부는

“2009년 WTF 총재선거에 한국정부가 개입돼 있다는 오해를 샀으며, 이는 Rogge 위원장에게도 보고가 됐다. 이는 일부 IOC 위원들의 반감으로 이어져 태권도가 하계종목에서 떨어질 수 있다”

“국제적 리더십이 필요하나 현재 WTF는 너무 한국인이 많다”

“태권도가 현재같이 운영 되어서는 앞날이 지극히 걱정된다. 불투명한 회계, 한국인들이 주도권을 잡고 좌지우지 하는데 과연 국제스포츠로서 앞날이 순탄할지는 매우 불투명하다”

등 부정적 언급을 하며 태권도의 올림픽 종목 퇴출 가능성을 밝혔다.

WTF는 공식 전자호구 업체선정과 관련해 법적 소송 중에도 있다. ‘라저스트 스포츠’는 2006년 WTF 전자호구 공인업체로 선정돼 2009년 세계선수권대회부터 사용됐다. 그러나 WTF는 2010년 1월 라저스트와 독점스폰서 조항을 삭제하고 2월 ‘스페인 대도’사를 두 번째 전자호구 업체로 선정하면서 관계가 악화됐다.

라저스트 스포츠사는 2012년 런던올림픽 전자호구가 대도사 제품으로 선정돼 조정원 총재와 양진석 사무총장을 고소, WTF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2) 폐쇄적 운영

국제스포츠 인사들 사이에 태권도는 곧 대한민국이라는 인식이 크다. 태권도는 종주국이 대한민국이고, WTF 본부가 대한민국에 위치해 있고, 총재 등 주요 인사들이 대한민국 국적이고,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선수가 많은 메달을 획득하면서 세계인에게 ‘태권도=대한민국’으로 각인됐다.

WTF는 이사회 임원 35명 중 총재, 사무총장 등 핵심 포스트를 포함 10명이 한국인으로 구성돼 있어 폐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국기원 단증은 올림픽 경기 참가 자격 요건으로 돼 있어 올림픽 스포츠가 일개 국가의 관장을 받고 있어 올림픽 정신에 어긋난다는 여론이 조성돼 있다. 이 문제는 IOC 위원들에 의해 여러 차례 정부에 건의된 적이 있으나 바뀌지 않고 있다.

유럽·미국 태권도 연맹은 국기원의 해외 승급승단심사 체계에 반발해 자체 단증 발급을 추진하고 있다.

3) 대회운영 미숙

지난 2008 베이징올림픽에서 태권도는 페어플레이 정신도 실종됐다. 태권도 남자 80kg이상급 동메달 결정전에서 양헬 발로디아 마토스(쿠바)는 심판에게 항의하다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주심에게 발길질을 했다. 태권도 여자 87kg급 8강전에서는 새라 스티븐슨 선수가 판정패 했다가 비디오 판정 뒤 결과가 뒤집힌 사례도 있다.

2000 시드니올림픽에서는 태권도 여자 57kg급 준결승에서 터키 하미드 비킨이 심판 편파판정에 항의했고, 태권도 여자 49kg급 경기에서도 대만과 쿠바선수수가 심판의 불공정한 판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1992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는 태권도경기장에서 바르셀로나 거주 한국교민이 의자를 집어던지는 불상사가 발생, 국제적 망신을 샀다. 태권도 남자 플라이급 준결승에서 멕시코 심판이 한국선수에 불리한 판정을 내려 패하자 의자를 경기장 안에 집어던지며 소란을 피웠다.

태권도 판정시비는 올림픽에서만 문제가 아니다. 아시안게임, 세계대회, 국내대회 등 대회마다 편파판정 시비가 있었고, 이로 인해 태권도는 국제스포츠프로로부터 외면당했다.

04 올림픽 종목 유지 전략

1) 태권도 올림픽종목 유지의 필요성

IOC 올림픽 종목 평가 기준은 Universality(보편성), Popularity(대중성), History&Tradition(역사성&전통성), Athletes(선수), Development of IF(IF 성장성), Finance(재정성)이며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보편성과 대중성이다.

태권도는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전 세계인들이 애호하고 관심을 갖는 스포츠다. 특히 태권도는 올림픽종목 26개 중 국제연맹의 회원국 수가 6위로 상위권에 있다.

태권도는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된 1994년 WTF 회원국 수가 125개국에서 현재 62% 증가한 203개에 달한다. 태권도 올림픽 종목 채택은 많은 국가들이 WTF에 신규 가입하는 등 태권도 저변 확대에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표 5〉 태권도 및 경쟁종목 IF의 회원국 현황

구분	태권도	복싱	승마	근대5종	트라이애슬론
IF별 회원국	203	194	133	104	129
전체순위	6	8	19	26	25

태권도는 특성상 별도의 장비나 시설 없이도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스포츠다.

태권도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통치자 셰이크 모하메드의 친딸인 알 막툽 공주에서 아프카니스탄에 최초 메달을 안겨준 카불의 빈민가 출신 로홀라 니크 파이 선수처럼 남녀노소, 빈부격차 등 상관없이 모든 세계인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다.

태권도는 누구나 장소에 관계없이 할 수 있으며 누구나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할 수 있는 공정한 스포츠다.

〈표 6〉 태권도 및 경쟁종목 메달획득 국가 수

구분	태권도	복싱	승마	트라이애슬론	근대5종	
총 메달 수	32	44	18	6	6	
메달획득 국가수	22(5위)	20(7위)	8(16위)	5(23위)	5(23위)	
%	아프리카	4	2	0	0	0
	아메리카	25	23	28	17	0
	아시아	50	29	0	0	0
	유럽	21	41	67	33	100
	오세아니아	0	0	5	50	0

〈표 7〉 태권도 올림픽 메달획득 현황

대회	참가자	메달획득		
		메달수	국가별	우리나라 비율
2000 시드니	51개국 103명	금 8개	대한민국(3), 5개국 각 1개	17%
		은 8개	대한민국(1), 7개국 각 1개	
		동 8개	대만(2), 6개국 각 1개	

대회	참가자	메달획득		
		메달수	국가별	우리나라 비율
2004 아테네	60개국 124명	금 8개	대한민국(2), 대만(2), 중국(2), 미국, 이란 각 1개	17%
		은 8개	그리스(2), 6개국 각 1개	
		동 8개	대한민국(2), 6개국 각 1개	
2008 베이징	64개국 128명	금 8개	대한민국(4), 멕시코(2), 중국, 이란 각 1개	13%
		은 8개	태국 등 8개국 각 1개	
		동 16개	미국(2), 크로아티아(2), 대만(2), 10개국 각 1개	
2012 런던	63개국 128명	금 8개	스페인, 중국, 대한민국 등 8개국 각 1개	6%
		은 8개	스페인(2), 중국, 터키 등 6개국 각 1개	
		동 8개	러시아(2), 미국(2), 콜롬비아, 쿠바 등 12개국 각 1개	

태권도는 종목별 역대 메달리스트 중 개발도상국 선수 비율도 38.7%(31개)로 근대5종 18%(3개), 승마 14%(5개), 트라이애슬론 0% 등 다른 종목에 비해 높은 편이다.

〈표 8〉 올림픽 태권도종목 참가 국가 및 선수, 메달획득 국가

구분	2000시드니	2004아테네	2008베이징	2012런던
참가 국가 및 선수	51개국 103명	60개국 124명	64개국 128명	63개국 128명
메달획득 국가	18개국	13개국	22개국	32개국

태권도는 올림픽 정신인 세계평화와 국가간 연대감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태권도는 태권도 단체 중심으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 일환으로 태권도 사범 파견, 개발도상국 태권도 용품지원 및 선수·코치진 국내연수, 평화봉사단 파견 등 연간 30억원의 정부지원을 받고있다.

근대올림픽 창시자 쿠베르탱은 “올림픽은 아름다운 스포츠정신이 세계 어느 곳에나 보급되어 온 세계의 청년들이 진실로 평화를 사랑하며 인생에 대한 존엄성을 창조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2) 타종목 올림픽 유지 전략

- 근대5종 경기

근대5종 경기는 근대올림픽 창시자인 쿠베르탱 남작의 영향으로 1912년 스톡홀름 올림픽에서 탄생했다. 근대5종 경기 여자종목은 1981년 세계선수권대회부터 시작됐고 2000년 시드니올림픽에서 정식경기로 처음 채택됐다.

근대5종 경기는 하루에 5개 종목을 실시해 종목별 경기기록을 환산, 총 득점이 가장 높은 선수가 승자가 되는 경기다. 근대5종 경기는 펜싱, 수영, 승마, 복합(사격+육상)경기 순서로 진행되며 마지막 복합경기는 펜싱, 수영, 승마 등 3개 종목 종합성적의 순위로 출발하게 된다.

근대5종 경기는 올해로 100주년을 맞이해 종목 홍보를 위한 대대적인 기념 행사를 준비 중에 있다. 또 근대5종 경기는 유럽 중심으로 활동을 하면서 영향력 있는 IOC 위원들과 탄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유럽 IOC위원 대다수의 지지를 얻고 있다.

근대5종 연맹은 2009년 모나코 왕자의 측근이자 WOA(World Olympian Association)회장인 Buzo를 사무총장으로 영입했다.

〈표 9〉 근대5종 경기 역대 올림픽 메달 수(국가별)

순위	국가	메달 수			
		금	은	동	합계
1	헝가리	9	8	5	22
2	스웨덴	9	7	5	21
3	(구)소련	5	5	5	15
4	러시아	3	1	0	4
5	폴란드	3	0	0	3
6	이탈리아	2	2	3	7
	영국	2	2	3	7
8	독일	2	0	1	3
9	리투아니아	1	2	1	4
10	체코 공화국	1	0	1	2
11	카자흐스탄	1	0	0	1
12	미국	0	6	3	9
13	핀란드	0	1	4	5
14	체코슬로바키아	0	1	1	2
	단일팀	0	1	1	2
16	라트비아	0	1	0	1
	중국	0	1	0	1
18	프랑스	0	0	2	2
19	벨라루스	0	0	1	1
	브라질	0	0	1	1
	우크라이나	0	0	1	1
합계		38	38	38	114

• 승마

승마는 유럽에서 시작됐으며, 기원전 680년 제25회 고대올림픽에 4두 마차 경주가 최초의 승마라 할 수 있다. 승마는 유럽에서 일부 귀족 스포츠로 성행했지만 근대 스포츠의 승마로 발전, 1912년 세계 승마계를 통합하는 단체로 국제마술연맹이 파리에서 창립됐다. 승마는 제2회 파리올림픽부터 정식종목으로 채택됐고, 6개 종목에 18개 메달이 있다.

승마는 길이 60m, 폭 20m의 직사각형 경기장에서 규정된 구분 동작의 정확성과 연계동작의 자연스러움 등을 관찰해 채점하는 마장마술경기와 통상 700~800m 코스에 장애물 13~16개를 설치해 정해진 시간에 장애물을 뛰어 넘는 장애물 경기, 마장마술경기와 장애물경기를 함께 하는 종합마술경기가 있다.

승마는 올림픽 초창기부터 정식종목으로 자리 잡았고 유럽 중심의 견고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활동하고 있다.

• 복싱

고대 조각이나 벽화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복싱은 기원전 3,000년전에 시작됐다. 복싱은 제23회 고대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됐다.

복싱은 1,000년경 공식적인 경기장에서 시합이 시작됐다. 그 후 1892년 글러브를 끼고 1라운드를 3분으로 하고 휴식은 1분으로 하며 다운이 되어 10초 이내에 일어나지 못하면 상대방의 승리로 인정하는 규칙이 제정됐다.

1896년 근대올림픽이 개최돼 세계 각국에서 복싱연맹이 결성됐고, 국제아마추어복싱연맹(AIBA, Association Internationlae de Boxe Amateur)은 1946년

영국 런던에서 발족했다.

복싱은 격렬한 스포츠로 선수 안전성과 심판 공정성에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여성복싱 등 경기종목을 늘리고 경기진행 방식을 개선했다. 또 IOC위원들을 대거 집행위원에 포진하면서 올림픽 종목 유지를 준비하고 있다.

• 트라이애슬론

트라이애슬론, 일명 철인3종경기는 1920년대 마르세유의 수영클럽에서 자전거 7km에 이어 달리기 5km를 한 뒤 수영 200m로 마치는 3종 경기가 프랑스에서 태동했으나, 오늘날 트라이애슬론의 시작은 1970년대 미국이다.

트라이애슬론은 1974년 미국 클럽에서 달리기 4.5km, 자전거 8km, 수영 400m를 결합한 경기를 개최하며 처음으로 ‘트라이애슬론’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트라이애슬론은 1982년 미국트라이애슬론협회(USTA)가 출범했고, 1989년 3월 프랑스 아비뇽에서 국제트라이애슬론연맹(ITU)이 창립된 뒤 같은 해 8월 아비뇽에서 제1회 세계선수권대회가 열렸다.

IOC는 1994년 IOC총회에서 트라이애슬론을 2000년 시드니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했고, 아시안경기대회도 2006년 도하아시안경기부터 정식종목으로 채택했다.

트라이애슬론은 근대5종 경기와 내용이 비슷하고 대중성이 떨어지고 유럽중심적인 경기이다. 하지만 트라이애슬론은 스페인 IOC위원인 Casado가 총재며, 유럽중심인 IOC위원을 중심으로 인적네트워크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

3) 올림픽 추가종목 진입 전략

- 가라테

가라테는 기원에 대한 정설은 없으나, 대체로 고대 인도에서 발생해 중국 당 나라를 거쳐 삼국시대 때 한국으로 들어와 14세기경 일본 류큐(오키나와)로 건너간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1920년 일본에서 활성화되면서 가라테라는 명칭으로 통용됐다.

가라테는 1970년 가라테세계연합(WUKO)을 결성해 제1회 세계선수권대회가 개최됐다. 가라테는 1970년 IOC 승인종목으로 채택됐고, OCA도 규정종목으로 채택돼 지난 1994년 히로시마 아시안게임부터 정식종목으로 채택돼 국제스포츠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가라테는 2016년 올림픽 이후 추가종목(Additional Sports)으로 올림픽 진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가라테는 2005년 싱가포르 IOC총회에서 전체 105표 중 63표의 찬성표를 얻어 아쉽게 2/3를 못채워 탈락했다.

가라테는 일본의 보수적인 가라테 단체로 인한 전형적인 일본 단(段) 체계 때문에 국제 가라테 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가라테는 국제연맹 회장을 일본인이 아닌 외국인이 맡아 종주국 이미지를 탈피했다. 가라테는 180개국이 가맹했고, 유럽 중심으로 국제조직을 활성화해 올림픽 종목 채택을 준비하고 있다.

태권도가 25개 핵심종목에서 탈락될 경우, 유사스포츠인 가라테와의 경쟁을

통해 추가종목으로 선정돼야 하는 불리한 상황이다.

2005년 IOC 올림픽종목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태권도는 2000년에 올림픽종목으로 채택된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고, 대륙별로 고른 참여를 하고 있지만 매체 노출이나 마케팅, 여성 참가율 등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태권도는 가라테에 비해 회원국 수는 많으나 세계대회 참가율, 미디어 노출, 마케팅, 방송 수익금 등은 가라테가 우세하다고 평가했다.

• 우슈

우슈는 6세기 중국 선종의 시조인 달마선사가 고대 인도 무술을 응용해 발전시켜 민간 무술로 전승됐다.

1980년대 들어 중국우슈협회 등이 중심이 돼 세계화를 위한 본격적인 노력을 시작했다.

우슈는 1936년 베를린올림픽 때 무술단이 형성돼 시범과 함께 국제무대에 첫 선을 보였다. 이후 우슈는 산발적으로 열리다가 1988년 아시안경기 정식종목으로 의결되고, 1990년 북경아시안경기부터 정식종목으로 채택됐다.

우슈는 1990년 국제우슈연맹을 설립하고 1991년 세계선수권대회를 개최해 국제경기대회 진출했다.

우슈는 생활무술로 출발해 해외 거주 중국 우슈인이 무술종목 중 가장 많이

분포돼 있다.

중국은 개혁, 개방정책에 맞춰 전통우슈가 세계로 나아갈 수 있게 사회적 배경을 만들어 올림픽 종목에 진입할 수 있도록 국가 정책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

05 태권도 올림픽 종목 유지를 위한 대책

올림픽 26개 핵심종목은 태권도와 유도 등 2개 종목을 제외하고는 유럽에서 기원하고 있다. 올림픽 종목을 결정하는 IOC 위원 42%가 유럽인이다. 현재 퇴출예상 종목도 태권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유럽 중심의 종목이다.

태권도 올림픽 종목 유지는 대한민국 문화 보급과 태권도 지도자들의 위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국가적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1) 태권도 단체의 역할

WTF와 국기원의 통합형태가 필요하다. 통합형태는 국기원을 WTF 산하기구로 두고 국기원이라는 명칭은 유지하되 WTF 별정직 기구로서 세계 태권도 단종 발급업무를 담당시킨다. 또한 국기원이 단종 발급을 각 대륙연맹에 일임한다면 WTF 본부가 해외로 이전하더라도 국기원이 대한민국에 남아 있는 명분을 상실하지 않을 것이다.

국기원은 지난 40년간 태권도의 상징으로 전 세계에 그 자리를 지켰다. 이제 국기원은 모든 업무를 WTF에 이양하고 국내 승품단종 관장과 태권도 학술 및 지도자 교육에 업무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

WTF는 국기원 뿐만 아니라 ITF(국제태권도연맹, International Teakwondo Federation, 회장 : 북한의 장웅 IOC위원)와의 통합도 시급한 상황이다. WTF는 지난 2005년 6월 중국 상하이에서 ITF 관계자들과 WTF-ITF 통합을 위한

위원회 구성에 합의했으나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는 실정이다.

태권도는 현재 올림픽 종목 중 유일하게 2개의 IF가 존재하고 있다. 심지어 ITF는 남미지역에서 독립해 지역경기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제스포츠사회는 이를 WTF의 리더십 문제라고 보고 있다.

WTF는 5개 대륙연맹,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등과 일체가 돼 움직여야 할 것이다. 올림픽 핵심종목 결정은 IOC 프로그램위원회가 제출한 25개 종목 그 대로 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WTF는 태권도 올림픽 잔류 여부의 열쇠를 쥐고 있는 IOC 프로그램 위원회 위원들 13명을 스포츠외교력을 동원해 전략적으로 태권도에 우호적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로잔에 위치한 WTF 연락사무소의 인적충원과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스포츠 중심지인 유럽의 올림픽 도시 로잔에는 현재 IOC 본부를 비롯해 대다수의 국제경기연맹과 유관기관들이 위치해 있다. WTF도 2006년 대표사무실을 열고 활동을 하고 있다. 타종목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WTF도 대표사무소를 통해 유럽 중심의 홍보활동과 네트워크 형성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2) 정부의 지원

IOC는 정부의 간섭으로 인해 스포츠 단체의 자율성이 침해되는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있다. 최근 쿠웨이트 NOC가 자격정지, 인도 NOC가 경고를 받은 사례가 있다.

쿠웨이트는 2008년 정부가 쿠웨이트 NOC 국내 가맹경기단체장 선임을 허용하는 법령을 발의해 IOC로부터 회원국 자격을 일시 정지당했다가 2012년 런던 올림픽 개막전에 자격을 회복했다.

인도는 IOC 권고에도 수레시 칼마디 인도올림픽협회(IOA) 위원장에 대한 부패혐의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IOC는 인도의 올림픽 참가를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IOC위원 윤리규정에는 올림픽 개최지 선정, 올림픽 종목 선정 등 사전로비를 차단하기 위해 IOC 위원이 아닌 관련 국가 사람들과의 접촉을 제한하고 있다.

이렇듯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은 국제경기연맹(IF)과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문제로 정부나 대한체육회(NOC)가 직접 관여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태권도 관련 단체나 태권도 인사, 국내 IOC위원들이 전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협의체 등을 구성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2009년 이후 태권도시범단을 해외 파견하고 있다. 현재 태권도 시범단 파견을 연간 2~3회에서 모든 대륙별로 연간 1회 이상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개발도상국 등 후진국에 태권도사범 파견, 태권도 용품지원 등 태권도에 대한 인프라 구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재외공관 및 문화원 중심으로 태권도 중점홍보가 필요한 지역에 태권도 교실 운영, 태권도 대회 지원 등 현지 태권도 저변 확산 프로그램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3) 태권도 홍보

관중수, 미디어 노출도를 포함한 관람스포츠로서의 흥미성은 IOC 프로그램 위원회의 올림픽 종목 평가 기준이다.

태권도는 미디어 노출량이 너무 적다. 올림픽 기간 게재된 기사 수를 비교해 본 결과 2004 아테네 올림픽은 80건으로 26개 종목 중 25위를 했고, 2008 베이징 올림픽은 50건 24위로 하위권을 기록했다.

태권도는 미디어 노출을 증가시키기 위해 화면 친화적인 경기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경기복 등 TV화면에서 눈길을 끌 수 있어야 한다. 또 국제·대륙별 선수권대회 시간대 및 진행방식 등을 미디어와 사전 협의하고, 미디어 친화력이 높은 스타 선수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콘텐츠 개발과 보급이다. 태권도는 움직임이 빠른 흥미진진한 경기로 이에 대한 촬영기술과 콘텐츠를 개발해 미디어를 활용, 대중화해야 할 것이다.

〈표 10〉 올림픽 기간 게재된 기사의 수

2004 아테네 올림픽						2008 베이징 올림픽					
NO	IF	기사수	NO	IF	기사수	NO	IF	기사수	NO	IF	기사수
1	FINA	1,650	14	ISSF	267	1	IAAF	2,903	14	ITTF	152
2	FIG	681	15	FEI	253	2	FINA	1,345	15	IHF	138
3	FIFA	633	16	FILA	234	3	FIFA	1,198	16	FIE	126
4	FIBA	584	17	FIE	198	4	FIBA	937	17	FEI	124
5	UCI	546	18	IHF	176	5	ITF	663	18	IWF	123

2004 아테네 올림픽						2008 베이징 올림픽					
NO	IF	기사수	NO	IF	기사수	NO	IF	기사수	NO	IF	기사수
6	IJF	436	19	FITA	150	6	FIVB	598	19	BWF	118
7	FIVB	434	20	ISAF	150	7	FIG	472	20	FIH	89
8	ITF	356	21	ITTF	122	8	UCI	435	21	FITA	83
9	IWF	325	22	BWF	96	9	ICF	383	22	ITU	72
10	FIH	303	23	IAAF	96	10	AIBA	365	23	ISAF	56
11	AIBA	300	24	ITU	87	11	IJF	238	24	WTF	50
12	FISA	299	25	WTF	80	12	FISA	168	25	ISSF	46
13	ICF	267	26	UIPM	54	13	FILA	160	26	UIPM	29

태권도는 미디어 노출도 작지만 연간 종목별 IF 홈페이지 방문자 수도 2004년 1,760명 19위, 2008년 2,507명 18위로 중하위권을 기록했다.

문제는 조직간 분열이다. 해마다 수십만 명이 승단 시험을 보지만 국기원이 있고 대한태권도협회가 있다. 각 국가별 회원국 관계자만이 관심 있을 뿐 다른 이유로 WTF 홈페이지를 방문할 이유가 없다.

IOC 평가는 WTF 홈페이지와 런던올림픽 태권도 사이트 등 2개만을 중심으로 할 것이다. 태권도만 특별히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 등 관련 사이트를 평가항목에 넣지는 않을 것이다.

IT강국을 자랑하는 우리 조차 트위터, 페이스북, UCC, 각종 미디어 등 태권도에 대해 관심이 없다. 우리 조차 관심이 없는 태권도에 세계인의 관심과 사랑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지난 1996년 월드컵 유치를 위해 우리는 '2002 월드컵유치 엽서보내기 범국민운동'을 하고 120만장의 엽서를 FIFA본부앞에 전시했다.

태권도 홍보를 위해 늦었지만 우선 우리 국민 한명 한명의 마음이 담긴 촛불부터 켜야 할 것이다.

〈표 11〉 연간 해당 IF 홈페이지 방문자 수

2004 아테네 올림픽						2008 베이징 올림픽					
NO	IF	기사수	NO	IF	기사수	NO	IF	기사수	NO	IF	기사수
1	FIFA	150,000	14	ITTF	4,029	1	FIFA	330,000	14	UIPM	4,944
2	BWF	29,165	15	UIPM	3,912	2	FIG	33,967	15	FIH	4,753
3	IWF	24,000	16	FIG	3,000	3	ISAF	30,000	16	UCI	4,500
4	FIVB	15,000	17	FILA	2,000	4	ITF	30,000	17	FIE	2,738
5	ISAF	15,000	18	AIBA	2,000	5	FIVB	28,000	18	WTF	2,507
6	ITF	10,000	19	WTF	1,760	6	BWF	26,459	19	FEI	2,368
7	FIBA	10,000	20	FEI	1,400	7	IAAF	24,987	20	IHF	2,200
8	ICF	9,648	21	FIH	1,362	8	ITTF	22,495	21	ICF	2,047
9	UCI	8,300	22	FIE	1,358	9	ITU	18,582	22	AIBA	2,038
10	FINA	7,350	23	FISA	1,213	10	FIBA	15,000	23	FISA	1,690
11	ITU	6,000	24	IHF	1,000	11	FINA	9,202	24	IWF	1,071
12	ISSF	5,500	25	FITA	795	12	ISSF	7,500	25	FILA	-
13	IJF	5,000	26	IAAF	-	13	FITA	5,688	26	IJF	-

06 맺음말

2011년 7월 7일 새벽, 남아공 더반에서 열린 IOC 정기총회에서 2018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대한민국의 평창(63표)이 강력한 경쟁후보인 독일 뮌헨(25표), 프랑스 안시(7표)를 1차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제치고 선정됐다.

대한민국은 '88 서울올림픽', '2002 한일월드컵',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에 이어 동계올림픽까지 4대 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한 6번째 스포츠 강국으로 태어났다. 4대 국제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한 나라는 독일, 프랑스, 아탈리아, 러시아, 일본 등 5개국 밖에 없다.

다음 차례는 태권도다. 2013년 IOC 정기총회에서 하계올림픽 정식종목 영구 잔류가 최종 결정된다. 현재 태권도 올림픽 종목 잔류가 낙관적이지는 않다.

만약 내년 태권도가 올림픽 종목에서 탈락될 경우 앞으로 태권도는 올림픽 종목에 다시 채택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지난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활동비로 약 1,500억원이 소요됐다고 한다. 만약 태권도가 추가종목으로 올림픽 종목에 다시 들어가기 위해선 활동예산으로 매년 1,0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이다.

태권도가 올림픽 종목에서 탈락하면 한국스포츠의 국제 위상은 추락할 것이다. 또한 태권도를 통한 외교력이나 국제정보 교류에 한계가 생길 것이다.

특히 세계적으로 태권도 인기가 하락해 국내의 태권도 지도자의 생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태권도를 많은 국가에서 보급하고 수련하고 있는 이유는 올림픽 정식종목이라는 점이 크다.

태권도는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이며 문화상품이다. 태권도가 올림픽 영구종목이 된다면 문화적, 경제적으로 국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태권도는 위기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다. 태권도계 뿐만 아니라 정부, 전 국민이 힘을 모아 태권도 올림픽 영구종목 유지에 모든 마음을 합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IOC 위원 현황

연번	Region	Name	Country	From
1	미주	Ms Angela RUGGIERO	USA (America)	2010
2	미주	Mr Carlos Arthur NUZMAN	BRA (Brazil)	2000
3	미주	Ms Nicole HOEVERTSZ	ARU (Aruba)	2006
4	미주	Mr James L. EASTON	USA (America)	1994
5	미주	Ms Rebecca SCOTT	CAN (Canada)	2006
6	미주	Ms Yumilka RUIZ LUACES	CUB (Cuba)	2008
7	미주	Mr Willi KALTSCHMITT LUJÁN	GUA (Guatemala)	1988
8	미주	Mr Reynaldo GONZÁLEZ LÓPEZ	CUB (Cuba)	1995
9	미주	Mr Austin L. SEALY	BAR (Barbados)	1994
10	미주	Ms Anita L. DEFRANTZ	USA (America)	1986
11	미주	Mr Richard L. CARRIÓN	PUR (Puerto Rico)	1990
12	미주	Mr Melitón SÁNCHEZ RIVAS	PAN (Panama)	1998
13	미주	Mr Julio César MAGLIONE	URU (Uruguay)	1996
14	미주	Mr AndrésBOTERO PHILLIPSBOURNE	COL (Colombia)	2007
15	미주	Mr Richard W. POUND, Q.C.	CAN (Canada)	1978
16	미주	Mr Iván DIBÓS	PER (Peru)	1982
17	미주	Mr Olegario VÁZQUEZ RAÑA	MEX (Mexico)	1995
18	아시아	Mr Kun-Hee LEE	KOR	1996
19	아시아	Mr Timothy Tsun Ting FOK	HKG (Hong Kong)	2001
20	아시아	Mr Nat INDRAPANA	THA (Thailand)	1990
21	아시아	Mr Habib MACKI	OMA (Oman)	2009
22	아시아	HRH Prince Tunku IMRAN	MAS (Malaysia)	2006
23	아시아	HRH Prince Nawaf Faisal Fahd ABDULAZIZ	KSA (Saudi Arabia)	2002
24	아시아	Mr Ser Miang NG	SIN (Singapore)	1998
25	아시아	Mr Zaiqing YU	CHN (China)	2000

연번	Region	Name	Country	From
26	아시아	HRH Princess Haya AL HUSSEIN	UAE (United Arab Emirates)	2007
27	아시아	HRH Prince Tamim Bin Hamad AL-THANI	QAT (Qatar)	2002
28	아시아	Ms Rita SUBOWO	INA (Indonesia)	2007
29	아시아	Mr Ung CHANG	PRK	1996
30	아시아	Sheikh Ahmad Al-Fahad AL-SABAH	KUW (Kuwait)	1992
31	아시아	Ms Yang YANG	CHN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0
32	아시아	Mr Samih MOUDALLAL	SYR (Syrian Arab Republic)	1998
33	아시아	Mr Dae Sung MOON	KOR	2008
34	아시아	Mr Toni KHOURY	LIB (Lebanon)	1995
35	아시아	HRH Prince Feisal AL HUSSEIN	JOR (Jordan)	2010
36	아시아	Mr Ching-Kuo WU	TPE (Chinese Taipei)	1988
37	아시아	Raja Randhir SINGH	IND (India)	2001
38	아시아	Mr Francisco J. ELIZALDE	PHI (Philippines)	1985
39	아시아	Syed Shahid ALI	PAK (Pakistan)	1996
40	아시아	Ms. Lingwei LI	China	2012
41	아시아	Mr. Tsunekazu TAKEDA	JPN (Japan)	2012
42	아프리카	Mr Sam RAMSAMY	RSA (South Africa)	1995
43	아프리카	Ms Nawal ELMOUTAWAKEL	MAR (Morocco)	1998
44	아프리카	Mr Richard PETERKIN	LCA (Saint Lucia)	2009
45	아프리카	Ms Lydia NSEKERA	BDI (Burundi)	2009
46	아프리카	Mr Habu GUMEL	NGR (Nigeria)	2009
47	아프리카	Mr Lamine DIACK	SEN (Senegal)	1999
48	아프리카	Mr Alpha Ibrahim DIALLO	GUI (Guinea)	1994
49	아프리카	Ms Dagmawit Girmay BERHANE	ETH (Ethiopia)	2010
50	아프리카	Mr Patrick S. CHAMUNDA	ZAM (Zambia)	2002
51	아프리카	Ms Beatrice ALLEN	GAM (Gambia)	2006
52	아프리카	Mr Issa HAYATOU	CMR (Cameroon)	2001

연번	Region	Name	Country	From
53	아프리카	General Mounir SABET	EGY (Egypt)	1998
54	아프리카	Mr Frank FREDERICKS	NAM (Namibia)	2004
55	아프리카	Ms. Kirsty Coventry	Zimbabwe	2012
56	아프리카	Ms. Aïcha GARADALI	DJI (Djibouti)	2012
57	아프리카	Gerardo Werthein	ARG	2011
58	오세아니아	Dr Robin E. MITCHELL	FIJ (Fiji)	1994
59	오세아니아	Mr John D. COATES, AC	AUS (Australia)	2001
60	오세아니아	Mr Barry MAISTER	NZL (New Zealand)	2010
61	오세아니아	Ms. Barbara Kendall	NZL	2011
62	오세아니아	Mr Richard Kevan GOSPER AO	AUS (Australia)	1977
63	오세아니아	Mr. James Tomkins	Australia	2012
64	유럽	Mr Gian-Franco KASPER	SUI (Switzerland)	2000
65	유럽	Mr Francesco RICCI BITTI	ITA (Italy)	2006
66	유럽	Mr René FASEL	SUI (Switzerland)	1995
67	유럽	Mr Vitaly SMIRNOV	RUS (Russia)	1971
68	유럽	HSH the Sovereign Prince ALBERT II	MON (Monaco)	1985
69	유럽	Mr Joseph S. BLATTER	SUI (Switzerland)	1999
70	유럽	Mr Shamil TARPISCHEV	RUS (Russia)	1994
71	유럽	Mr Gerhard HEIBERG	NOR (Norway)	1994
72	유럽	HRH the Prince of ORANGE	NED (Netherlands)	1998
73	유럽	Jose Perurena	ESP	2011
74	유럽	Mr Denis OSWALD	SUI (Switzerland)	1991
75	유럽	Sir Craig REEDIE	GBR (Great Britain)	1994
76	유럽	Ms Gunilla LINDBERG	SWE (Sweden)	1996
77	유럽	Count Jacques ROGGE	BEL (Belgium)	1991
78	유럽	Ms Irena SZEWINSKA	POL (Poland)	1998
79	유럽	HE Mr Pál SCHMITT	HUN (Hungary)	1983
80	유럽	HRH Crown Prince Frederik of DENMARK	DEN (Denmark)	2009
81	유럽	Dr Ugur ERDENER	TUR (Turkey)	2008

연번	Region	Name	Country	From
82	유럽	Mr Patrick Joseph HICKEY	IRL (Ireland)	1995
83	유럽	Mr Göran PETERSSON	SWE (Sweden)	2009
84	유럽	Mr Peter TALLBERG	FIN (Finland)	1976
85	유럽	Mr Mario PESCANTE	ITA (Italy)	1994
86	유럽	Sir Philip CRAVEN, MBE	GBR (Great Britain)	2003
87	유럽	Mr Jean-Claude KILLY	FRA (France)	1995
88	유럽	HRH the Princess ROYAL	GBR (Great Britain)	1988
89	유럽	Ms Claudia BOKEL	GER (Germany)	2008
90	유럽	Mr Ottavio CINQUANTA	ITA (Italy)	1996
91	유럽	Mr Patrick BAUMANN	SUI (Switzerland)	2007
92	유럽	Mr Pat MCQUAID	IRL (Ireland)	2010
93	유럽	Mr Valeriy BORZOV	UKR (Ukraine)	1994
94	유럽	HSH the Princess Nora of LIECHTENSTEIN	LIE (Liechtenstein)	1984
95	유럽	Mr Adam L. PENGILLY	GBR (Great Britain)	2010
96	유럽	Ms. Danka Bartekova	SVK (Slovakia)	2012
97	유럽	Ms Marisol CASADO	ESP (Spain)	2010
98	유럽	Mr Saku KOIVU	FIN (Finland)	2006
99	유럽	Mr Lambis V. NIKOLAOU	GRE (Greece)	1986
100	유럽	MrJuanAntonioSAMARANCH JR	ESP (Spain)	2001
101	유럽	Mr Leo WALLNER	AUT (Austria)	1998
102	유럽	Mr Alexander POPOV	RUS (Russia)	1999
103	유럽	Mr Thomas BACH	GER (Germany)	1991
104	유럽	Mr Sergey BUBKA	UKR (Ukraine)	1999
105	유럽	Mr Franco CARRARO	ITA (Italy)	1982
106	유럽	Mr Guy DRUT	FRA (France)	1996
107	유럽	Mr Alex GILADY	ISR (Israel)	1994
108	유럽	Mr. Pierre-Olivier BECKERS	BEL (Belgium)	2012
109	유럽	Mr. Tony Estanguet	France	2012